

# 장흥군 국 중심 조직개편 재추진 논란

### 군 “행정 복잡해져 과 체계로는 한계...컨트론타워 필요” 의회 “인구 3만명에 무슨...조직 비대·서비스 하락 우려”

장흥군이 행정조직체계를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직사회와 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는 지난해 의회에서 좌초됐던 것을 보완해 재추진하는 것이다.

13일 장흥군과 의회에 따르면 군은 현행 과중심 행정조직을 국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조직개편안을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장흥군이 검토 중인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13과·1의화·2직속·3사업소·10읍·면 등 총 148팀을, 2국·1담당관·16과·1의화·2직속·10읍·면 등 총 152팀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복

#### ■장흥군 조직개편안

1실·13과 1의화·2직속·3사업소 10읍·면 총 148팀	→	2국·1담당관·16과 1의화·2직속 10읍·면 총 152팀
---	---	---

합행정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직개편 필요성이 대두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인구 3만명대에 불과한 장흥의 현실에서 국 체계(4급 국장)는 공룡기구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의 거대화로 민원 처리 및 각종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가

높은 공무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또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국 체계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권의 복잡·다양한 행정 수요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나 필요하지 군 단위에서는 과 체계가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오히려 국 체계가 되면 부군 수-국장-과장의 결재 과정에서 업무 마찰에 따른 불협화음만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비록 인구는 줄었지만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져 과 체계로는 관리행정에 한계가 있다”며 “중간 단계인 국 체계의 순기능을 통해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국 체계의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 17개 군 가운데 보성·구례 등 현재 7개 지자체가 행정조직을 국 체계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하평 소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석축 제방 일부가 붕괴됐다.

(마을주민 제공)

## “부실공사 민원 목살...제방 붕괴”

다도 주민들 2년 전 지적

“나주시 녹장 대응 탓”

잔해 방치 2차 피해 우려도

나주시가 소하천 정비사업의 부실 공사 민원을 목살해 제방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방 붕괴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제방 복구는 커녕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아 추가 피해 우려와 함께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도면 마산리 '하평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난 2018년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이 사업은 강인규 나주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받아들여 진행됐다.

석축 제방 공사는 40여m 가량 시행됐는데 1차 20여m는 지난 2018년 A건설사가, 2차 20여m는 올해 초 B건설사가 진행했다.

1차 공사가 끝난 뒤 점검 과정에서 제방에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견되자 마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를 목살, 2년가방 방치했고 최근 집중호우 때 제방이 무너졌다. 올해 초 건설된 나머지 20여m 구간은 붕괴되지 않았다.

나주시가 녹장을 부리다 하자보수기간을 넘겨 결국 지방비로 제방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나주시는 제방 붕괴에도 복구는 커녕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너진 석축과 콘크리트 잔해가 하천에 방치돼 물길을 막음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마저 낳고 있다.

양계실 마산마을 이장은 “2018년 시행한 1차 공사가 끝난 뒤 갈라진 곳이 너무 많아 나주시에 부실 공사 민원을 제기했다”며 “올해 초 나머지 절반을 공사한 제방은 말짱한데 부실공사라고 지적했던 구간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제방이 무너진 날 주민 C씨는 “태풍이 이어지고 비도 계속 내리는데 제방 복구를 하지 않아 조상 묘소가 떠내려갈 상황”이라며 “제방 붕괴는 집중호우 때문이 아니라 나주시의 녹장 대응이 부른 인재다”고 비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하평 소하천 붕괴에 대해 다도면으로부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가장 큰 곳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다른 피해지역의 복구가 더 급해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함평 농작물재해보험 급증

12.6% 늘어난 6393ha '벼 최대'

기상 이변·보험료 지원율 상향 한몫

함평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올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함평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6393ha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80ha보다 12.6%인 713ha가 더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벼 재해보험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 지난해 가입률을 12% 이상 웃돌았다.

지역 3666 농가에서 6104ha를 가입해 지난해 최종 집계한 것보다 농가로는 807농가, 면적으로는 666ha 늘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초 함평군이 목표했던 지난해 대비 보험 가입률 20% 이상 증가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각 농가에 피해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런 증가세의 이유로 호우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다 지자체와 농협에서 보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상의 군수의 공약에 따라 준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것도 보험 가입수요를 끌어올렸다. 지난해까지 80%만 지원했던 벼 농작물재해보험료를 90% 지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판매할 양파·밀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점포 임대료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 장성군 '소상공인 3종 세트' 지원

29일 신청 마감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장성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가지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점포임대료는 2018년 9월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장성군이 3%를 지원하며 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추가로 2% 이내에서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기간은 3년이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장성군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해서는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료를 비롯해 한시적으로



장성군이 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소상공인 간담회. (장성군 제공)

공공요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와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이 25만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감염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주)지크린텍, 화순군에 마스크 1만7500장 후원

(주)지크린텍이 최근 1400만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1만7500장을 화순군에 후원했다.

(주)지크린텍은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소재한 황사용 마스크와 화장지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 5월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해 주민들을 위해 1만7500장을 기부했다.

최영운 지크린텍 대표는 “전달한 마스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